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6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개최

부안군은 29일 산사태 위험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부안군산립조합, 한국산립재단안전기술공단,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술사 등 산립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서 신규 지정 대상 10개소, 위험 요소가 해소된 4개소에 대한 심의의견을 논의했다.

심의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최종 지정이 되면 기후 위험 요소가 해소된 4개소에 대한 심의의견을 논의했다. 심의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최종 지정이 되면 기후 위험 요소가 해소된 4개소에 대한 심의의견을 논의했다.

또 군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단풍미인소핑몰

가정의 달 맞이 기획전

정읍시 단풍미인소핑몰, 가정의 달 맞이 기획전정읍시가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우수 농특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풍미인소핑몰 5월 가정의 달 기획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정읍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평소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풍성한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어 소중한 분들에게 전할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시는 행사 기간에 3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10% 장바구니 할인 쿠폰 5장을 지급하며, 회원가입 고객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5000점(포인트)을 제공하는 등 알찬 혜택을 준비했다. 단풍미인소핑몰 기획전은 전용 누리집(www.danpoongmall.kr)에 직접 접속하거나 포털사이트 검색, 정읍시청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바이오 산업 거점 도약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초이음 프로젝트' 공모 선정... 국도비 26억6000만원 확보 바이오 기업 대상, 사업장 설치비·연구비 등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정읍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인 '기초이음 프로젝트' 국가예산 공모에 선정돼 지역 산업 성장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기초이음 프로젝트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지역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협력 사업을 말한다. 광역 내 인접한 시·군이 연계할 수 있는 공동 사업 모델을 발굴해 산업과 인력을 이어주고 지역 내 거점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 선정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축이 돼 정읍과 전주, 익산을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 가치 사슬(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공모 선정으로 총사업비 27억 5000만원 가운데 국비 22억원과 도비 4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9000만원은 정읍시 포함한 3개 시·군이 똑같이 나눠 부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바이오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장 설치와 이전, 확장, 연구개발(R&D) 단계별로 최고 5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인공

지능(AI)과 디지털 도입에 최고 4000만원을 지원한다. 바이오 기업 근로자에게는 돌봄과 가사 등 자기 시간 지원금 1인당 50만원,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근속 지원금 200만원, 교통 지원금 150만원, 복지 지원금 90만원 등을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5월 초 공모를 거쳐 신청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내 기업의 참여를 돕기 위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바이오 기업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능(AI)과 디지털 도입에 최고 4000만원을 지원한다.

바이오 기업 근로자에게는 돌봄과 가사 등 자기 시간 지원금 1인당 50만원,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근속 지원금 200만원, 교통 지원금 150만원, 복지 지원금 90만원 등을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5월 초 공모를 거쳐 신청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내 기업의 참여를 돕기 위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바이오 기업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예비후보, 민선 9기 비전 발표

고정 월급 형태 햇빛 연금 지급·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대기업 일자리 500개 창출 등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고창군수 예비후보가 민선 9기 핵심 경제 비전인 '전력에너지 경제도시 고창'을 향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심덕섭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에서 29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대기업이 독식하던 재생에너지 수익을 군민에게 환수하는 '에너지기본소득공단'을 세워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군민 모두에게 고정 월급 형태의 햇빛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창사람상품권 규모를 1,000억 원으로 늘리고, 오일장 거리·중앙로·구터미널·월곡로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조례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지원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 8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삼선전차 3,500억원 투자를 이끌어 낸 심 후보는, "2027년까지 스마트물류센서를 차질 없이 가동하여 고창에서 출근하는 대기업 일자리 500개를



배관망을 깔아 생활비를 대폭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방안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되었다.

지난 민선 8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삼선전차 3,500억원 투자를 이끌어 낸 심 후보는, "2027년까지 스마트물류센서를 차질 없이 가동하여 고창에서 출근하는 대기업 일자리 500개를

더불어 "소상공인에게 1억원 한도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겨울철 난방비 폭탄에 시달리는 면 단위 취약계층을 위해 62억원을 투입, 중규모 LPG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신활력산단의 분양 완료를 대비해 30만평을 일반산단으로 추가 조성하고, 부가세 100%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중기계획으로는 상하면 일대에 102만평 규모의 RE100 전력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심덕섭 예비후보는 "오직 고창의 중단 없는 발전과 사람을 향한 깨끗한 행정으로 군민의 든든한 경제 밑거름이 되겠다"며, "과거의 정체로 돌아갈 것인지를, 검증된 실력을 갖춘 후보와 함께 거대한 변화를 이룰 것인지 군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선택을 호소한다"고 지지를 부탁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공연·체험·먹거리 풍성

정읍제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정읍시는 다가오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5일 정읍제일고등학교 운동장(우천 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정읍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반짝반짝 빛나는 어린이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오전 9시 30분 신나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다채로운 부대 행

사가 어우러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행사는 점핑 공연과 청소년 관소리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드론 농구, 그림책 만들기, 원예 체험, 캐릭터 네일아트, 얼굴 그림(페이스 페인팅), 인생네컷 등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또한 뽕튀기, 팝콘, 솜사탕, 아이스크림, 슬러시 등 달콤한 간식과 함께 청소년 댄스 공연, 비눗방울 공연, 무작위 춤추기(랜덤 댄스), 가족 친목 놀이(레크리에이션), 행운권 추첨 등이 이어진다. 특히 2000여 명에 달하는 치킨마요 점심과 든든한 간식까지 넉넉하게 마련해 행사장 방문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전망이다. 시는 이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행사장 곳곳에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응급 의료 공간을 운영하는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 사고 예방에도 빈틈없이 대비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7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김영식 군수 권한대행, 세종정부청사 방문·주요사업 국비지원 요청

고창군이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세종정부청사를 연일 방문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중앙부처 대응 현지 전략회의'를 열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점검했다. 이어 29일은 행정안전부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을 만나 재해 예방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고수 평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290억원), △대산 산정지구 풍수해생물권 종합정비(308억원) △아산 상갑지구 가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126억원) 등 총 3개 사업이다.

김영식 권한대행은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해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고수 평촌과 대산 산정지구의 재해위험 정비사업을 건의했다.

또한 아산 상갑지구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저수지 노후화와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이 단순 용수 부족을 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건의했다.

한편, 민선8기 고창군은 외촌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50여 개 4,500억원 규모의 안전 분야 예산을 확보하며 선제적 안전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특별교부세 6000만원 인센티브 확보

고창군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상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난해 평가에서 고창군이 평가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평가는 전국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민원행정 전략·

체계 △민원제도 △국민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5개 항목 20개 지표에 대한 대민접점의 민원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가~마' 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군은 평가에서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민원정비 및 구비서류 감축', '국민신문고 민원의 체계적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평가군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공영주차장 불법 폐기물 의혹 고발 '혐의없음'

부안군수 권익현 예비후보 관련 고발사건 무혐의 종결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권익현 예비후보가 장수시우나 부지 불법 폐기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제기됐던 고발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각하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권익현 후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고발인들은 해당 공사 발주청인 부안군청 책임자인 권익현 후보와 시공업체 관계자가 공사 과정에서 혼합폐기물을 발견하고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

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부안경찰서는 해당 부지가 당시 부안을 주민들이 방축에 생활쓰레기를 버린 상태에서 1978년 농림부에서 매립을 해 현재 부지로 사용된 장소에 대해 발주청인 부안군 건설교통과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굴착하지 않은 잔존매립 폐기물에 대해 법적처리 의무가 규정되지 않고 주변 환경영향평가 및 토양오염 조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 등으로 불충치 이유로 '혐의없음' 각하로 판단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